

레위기

메시지 3

끊이지 않는 번제물 — 살아 있는 희생 제물

성경: 레 1:3-4, 8-9, 6:9, 12상, 13, 히 12:29, 롬 12:1

I. 번제물은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기보다는 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생활을 하도록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 레 1:3, 요 5:19, 30, 6:38, 7:18, 고후 5:15, 갈 2:19-20.

A.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제물은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이 아니라 번제물이다 — 레 1:3.

1.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첫 번째 상태, 곧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첫 번째 문제가 범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a. 하나님은 그분의 표현과 대표가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 창 1:26.

b.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산다.

2.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목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인 우리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창 1:27-28, 비교 시 73:25, 막 12:30.

3. 우리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 취해야 한다 — 레 1:3-4.

a.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셨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셨다 — 요 4:34, 5:30, 히 10:8-10.

b. 주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이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셨다 — 요 6:38, 5:17, 36, 43, 8:28, 10:25, 12:49-50.

B. 요한복음 7장은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실 완전한 자격을 갖고 계심을 계시한다.

1. 제한받는 생활, 곧 자아를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제한받는 생활을 하신 분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다 — 요 7:3-9, 18.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3 (계속)

2.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본다. 주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셨다.
3. 요한복음 7장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제한받는 사람이셨고, 하나님께 속하셨으며,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오셨고,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말하셨다는 것을 계시한다 — 요 7:18, 12:49-50.
4.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표현되셨다. 그분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 요 7:17-18.
5.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번제물의 실재이심을 본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 제한받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생활을 하셨기 때문이다.

II. 번제물의 예표에서 신성한 삼일성이 계시된다 — 레 1:3, 8-9.

- A. 레위기 1장 3절과 8절과 9절에서 신성한 삼일성을 계시하는 중요한 항목들은 번제물과 회막과 여호와와 제사장과 불과 물이다.
- B. 번제물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1:3.
- C. 회막은 제물을 드리는 장소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1:1, 3.
 1. 제물들은 회막 입구에서 드러졌다. 제물이 합법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회막 입구 외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드러져서는 안 되었다.
 2.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제물을 드리는 근거로 취해야 한다.
- D. 레위기 1장에서 아들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러지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신 아버지를 가리킨다 — 레 1:3.
- E. 레위기 1장 8절과 9절에서 제물을 드리는 일을 섬기는 제사장은 섬기는 분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 히 4:14-15, 5:5-6, 7:17.
- F. 번제물과 회막과 제사장으로 예표되신 것처럼 아들 그리스도는, 동시에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장소와 제물을 드리는 일을 섬기시는 분이시다 — 레 1:3, 8.
- G. 불은 기쁘게 받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 레 1:8-9.
 1. 불은 태워 버리고 삼킨다. 하나님은 제물을 태우심으로써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레위기

메시지 3 (계속)

2. 번제물을 태우는 불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이었다 — 히 12:29.
3. 번제물을 태우는 것은 신성한 식사였다 — 민 28:2.
- H. 번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씻는 물은 씻는 주체이신 그 영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과 그분의 매일의 행함이 성령에 의해 계속 씻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땅에 속한 것들을 접촉함으로써 더러워지는 것에서 지켜지실 수 있었다 — 레 1:9, 요 7:38-39.
- I. 레위기 1장 3절과 8절과 9절에서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 전체가 번제물과 관련되신다는 것을 본다.

III.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은 계속해서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 레 1:3-4, 8-9, 6:9, 12상, 13.

- A.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매일,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 요구되었다. 안식일마다, 매달 초하룻날마다, 그리고 모든 명절 동안에 특별한 번제물이 요구되었다 — 민 28:3-29:40.
- B. 번제물에 관한 요구 조건 때문에, 놋 제단은 특별히 ‘번제단’이라고 불리었다 — 출 30:28, 38:1.
- C. 번제물은 계속 드려야 하는 제물이었고, 번제물을 태우는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어야 했다. 이 불은 밤낮으로 타고 있어야 했다 — 레 6:9, 12상, 13.
 1. “번제물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제단 위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 레 6:9.
 - a.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 레 6:12상.
 - b.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고 있어야 하며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 레 6:13.
 2. ‘아침까지 밤새도록’은 번제물이 어두운 밤인 이 시대를 거쳐 아침까지, 곧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태우는 장소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레 6:9, 벰후 1:19, 말 4:2.
 3. 제단 위에서 계속 타고 있는 불은 우주 안의 거룩한 불이신 하나님께서 그분께 음식으로 바쳐진 것을 항상 받으실(태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과 그분께 바쳐진 것을 기쁘게 받으시려는 갈망을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 레 6:9하, 12상, 13, 히 12:29.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3 (계속)

D. 번제물의 예표는 우리에게 번제물을 계속 드리는 생활, 곧 온종일 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레 6:12상, 13.

IV. 번제물을 계속 드리는 생활을 하는 것은 살아 있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다 — 롬 12:1.

A. 번제물은 우리의 헌신, 곧 우리가 자신을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예표이다. 헌신의 의미는 우리 자신을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 레 1:3-4, 8-9, 6:9, 12상, 13, 롬 12:1.

B. 구약에서 매일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 신약에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예표한다 — 민 28:3-8.

C.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희생 제물은 살아 있다. 왜냐하면 부활하여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롬 6:4-5.

1. 살아 있는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이럴 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

D. 이 희생 제물은 거룩하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과 속된 모든 사람들과 일들과 사물들에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었기 때문이고, 또 기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한 본성을 가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타고난 생명과 옛 창조물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희생 제물을 기뻐하신다 — 롬 12:1.

E. 로마서 12장 1절에서 ‘몸’은 복수이지만, ‘희생 제물’은 단수이다.

1. 비록 많은 몸들이 드러지지만, 이 몸들이 한 희생 제물이 된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많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우리의 봉사가 분리되고 서로 상관없는 많은 개별적인 봉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2. 우리의 모든 봉사는 하나의 온전한 봉사를 구성해야 한다. 이 봉사는 틀림없이 유일한데, 그것은 이 봉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의 봉사이기 때문이다 — 롬 12:4-5.

3. 교회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번제물이다.

레위기

메시지 3 (계속)

4. 믿는 이들은 그들의 몸을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산다. 몸의 생활을 갖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과 그분의 몸에게 드려야 한다 — 롬 12:1, 4-5.

V.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봉사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온 불에 근거해야 한다 — 롬 12:11, 레 9:24, 16:12-13, 6:13, 비교 10:1-2.

- A.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봉사가 이 불에 근거하기를 원하셨다 — 레 6:13.
- B.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것에서 나오고 이러한 불의 산물이어야 한다 — 출 3:2, 4, 6, 롬 12:1, 11.